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김 영 미**

◁ 요약 ▷

이 연구는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제도 요인을 비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이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배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다국가 시간사용조사(MTUS) 자료를 이용해 덴마크(2001년), 노르웨이(2000년), 영국(2000년), 미국(2003년), 프랑스(1998년), 독일(2001년), 네덜란드(2005년), 스페인(2002년), 한국(2009년) 총 9개 국가에 대해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고,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한국과 덴마크는 양극단에 위치했다. 다층분석 결과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이 흥미롭고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성역할규범이 평등한 사회, 전체 유급노동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밝힙니다 (NRF - 2011 - 332 - B00293).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dezember26@gdsu.dongseo.ac.kr)

간이 짧은 사회, 기혼여성의 고용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체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일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출산·양육휴가기간이 긴 국가일수록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젠더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을 둘러싼 젠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성역할 인식을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전체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 복지국가 제도, 다국가 시간사용조사, 다층분석

1. 서론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 제도 요인을 비교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시간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사용하는 사적인 자원이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사회적 산물이자 성별에 따라 혹은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한 가구 내에서 그리고 한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여가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쓸 것인지 혹은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과 가구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속한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혼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개인, 가구가 가진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유급노동의 세계는 혁명적인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것에 반해, 무급노동의 세계는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Hochschild and Machung, 1989).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유급노동시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해 왔다. 물론 과거에 비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폭은 크지 않으며 가정 내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Gershuny, 2000). 오랜 기간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Ciabattari, 2001; Fan & Marini, 2000; Loo & Thorpe, 1998; Stickney & Konrad, 2007), 무급노동시간의 불균등한 배분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Gershuny et al(1994)은 이를 혁명의 지연보다는 ‘변화에 대한 적응 지체(lagged adaption)’라고 설명하면서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결혼과 성역할과 같은 가족가치의 변화 등 선진산업국가들이 유사한 구조적 압력과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가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을 높이고 유급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데 반해, 무급노동시간은 정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무급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무급노동시간 차이를 설명하는 미시적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은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 간 차이나 거시적 요인에 대한 연구, 특히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지 않다. 보살피고 사랑하고 교육시키고 가구유지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주로 여성들의) 무급노동시간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근대적 시간체제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제적 시간의 그림자(the shadow of economic time)’에 불과했다(Adam, 1995: 94-99). 공사분리 논리에 따라 유급노동세계와 무급노동(생활)세계는 철저히 분리되었고,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학문적, 정책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국가의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규정과 이를 위한 정책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유급노동시간 증가가 무급노동시간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이중노동의 부담과 엄청난 시간압박과 시간빈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돌봄과 가사노동의 책임과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남녀 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Gornick & Jacobs,

1998; Blau, Ferber and Winkler, 1998; Rubety, Smith and Fagen, 1998). 그리고 가정에서의 권력 불균형과 기혼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할 것이다(Hobson, 1990; Bianchi, Casper and Peltola, 1996). 가사노동의 외주화(외식, 세탁서비스 등)나 아동돌봄 지원(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개입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한계적일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간은 개인들의 삶에서 직업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시간으로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 동시에 두 가지 대체하기 어려운 중요한 과업 수행으로 시간압박이 심한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는 여성의 삶에, 그리고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단계에서 유급,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Anxo et al, 2007),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맥락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문화적 규범을 포함한 제도적 맥락과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이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제도와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배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별 노동 분업의 현실을 넘어,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생애주기 속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위한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국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특히 남성은 장시간 노동시간체제 속에 놓여 있고,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중부담으로 인한 엄청난 시간압박을 경험하고 있어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 더욱 중요한 함의를 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무급노동시간 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개인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이다(Gershuny, 2000). 삶의 과정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는 학교 입학, 취업, 결혼, 출산 등 그가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에 따라 조정되고 변화된다. 이러한 조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결혼을 하고 한 가구를 형성한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필요와 욕구, 여력이 함께 고려된다. 그동안 부부의 시간사용이 결정되는 방식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성별 노동분업이 유지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요인들을 제안해 왔는데, 크게 상대적 자원에 따른 협상력(bargaining power), 시간 가용성(time availability), 사회화된 성역할 세 가지 요인으로 압축된다. 즉, 제한된 시간 가용성, 불평등한 상대적 자원,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에의 순응을 이유로 부부 사이에 불균등한 시간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Brines, 1994; Coltrane, 2000; Greenstein, 2000).

먼저, 상대적 자원에 따른 협상 관점은 Blood & Wolfe(1960)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급노동의 분담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협상의 결과’라고 보았다. 부부는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하고 최선의 거래를 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사용하는데(Brines, 1993),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들은 가사노동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의 이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Bianchi et al, 2000; Ishii-Kuntz and Coltrane, 1992; Kamo, 1988; Maret and Finlay, 1984; Ross, 1987). 이러한 관점은 신고전경제학에 바탕을 둔 Becker(1981)의 신가구경제학(new household economics)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부부 중 누가 어떤 노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로 배우자의 상대적인 생산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유급노동에,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무급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Becker의 이론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정한 것과 달리, 협상관점은 부부가 각각 독특한 선호를 갖고 있고 모두 무

급노동을 피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Shelton & John, 1996)¹⁾.

이러한 관점은 사회학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정교하게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사회학 연구들은 아내의 교육수준, 소득,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상대적인 자원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ines, 1994; England & Budig, 1998; Bianchi et al., 2000; Evertsson & Neramo, 2004). 이런 관점에서 Bianchi et al.(2000)는 보유한 자원수준이 평등해질수록 가사노동 배분이 평등해진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은 남편의 수입이 아내보다 적거나 고용지위가 더 낮은 부부의 경우, 전통적인 젠더 행위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해 상대적 자원에 따른 협상력 관점만으로는 무급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Bittman et al., 2003; Brines, 1994; Evertsson & Neramo, 2004; Breen & Cooke, 2005; Esping-Andersen, 2009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시간가용성(time availability) 이론은 무급노동 분배에서 시간 제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England & Farkas, 1986). 이는 베커의 이론과 유사하게 부부들이 각자 가족복지라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고려하여 시간을 배분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시간 가용성은 외부적 제약조건(주로 시장노동)과 내부적 제약조건(특히, 자녀의 수와 연령)의 함수이다(Esping-Andersen, 2009).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들이 아내의 취업 혹은 노동시간의 증가가 남편의 가사노동 증가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Bianchi et al, 2000; Blair & Lichter, 1991; Greenstein, 1996; Ishii-Kuntz & Coltrane, 1992; Kamo, 1988; Ross, 1987).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여부보다는 노동시간인데, 실제로 여성이 시간제 노동자인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전업주부 남편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ier & Lewin-Epstein, 2000). 한편, 아동돌봄시간의 경우 가사노동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Bonke & Esping-Andersen(2008)에 따르면,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더라도 여성들이 자녀가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일대일로 대체하지 않으며(Bittman, Craig & Folbre, 2004; Hofferth, 2001), 오히려 자신의 여가시간, 개인을 돌보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Bianchi et al, 2006; Craig, 2007).

1) 물론 무급노동 중에서도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데, 아동 돌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활동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선호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관점들이 젠더 중립적인(gender-neutral) 접근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회화, 성역할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Coltrane, 2000; South & Spitze, 1994). 이 접근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역할에 순응하기 위해 사회화된다고 가정한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학습해 온 적절한 남성과 역할에 따라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Hiller, 1984). 이와 같이 무급노동시간 배분을 설명하는 세 가지 관점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수로 투입되어 그 영향력이 검토되었다. 상대적 자원이론에서는 자신의 소득, 배우자와의 상대적 소득, 다소 모호하긴 하나 교육수준 등이, 시간 가용성 이론에서는 부부의 근로유무와 근로시간,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이, 성역할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역할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어 왔다.

2)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배분

기존의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은 개인수준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부부 간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어떻게 분배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한 선택은 사회적, 경제적, 규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것이라는 접근은 다양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Lewis, 1992; Orloff, 1993; Pfau-Effinger, 2005; Sainsbury, 1996).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맥락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신제도주의 접근에 따르면, ‘제도는 행위자들의 선호(preference), 행위(behavior), 선택(choice)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²⁾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제도란,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을 의미하고,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구조화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원자화된 개인 혹은 과소 사회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는 공식적 규칙과 법률 등 공식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고, 규범과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다(하연섭, 2002). 제도가 개인의 선호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메커니즘은 두 가지 접근으로 논의된다(김영미, 2012).

2) 신제도주의는 제도 개념, 제도의 형성, 행위 구속성, 변화 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기되지만, 세 분파 모두 공통적으로 논리실증주의에 반하여 ‘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김순양, 2009).

첫째, 제도는 개인의 기회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제도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과 같은 것으로써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데서 기대되는 대가, 보상(returns) 혹은 비용 체계, 가능성과 유인을 구조화하여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하연섭, 2002: 340). 복지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사용과 배분을 구조화할 수 있는데, 노동시간의 규제 혹은 탈규제, 가족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소득지원 제공, 조세체계에서의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개입해 왔다(Cancian & Oliner, 2000; Gershuny, 2000; Kalleberg & Rosenfeld, 1990; Knijn & Kremer, 1997; Leira, 1999; Sainsbury, 1999; Hook, 2006에서 재인용). 이 모든 것들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제도는 개인에게 규범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그 사회에 ‘적합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한다(Lewis et al., 2008).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도덕적 동인(moral agents), 문화적 촉매제(cultural catalysts)로 설명된다(Kremer, 2006).

이러한 두 가지 제도주의 논리를 부모들의 무급노동시간과 연결해 보면, 먼저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은 부모(특히, 여성)의 기회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보육서비스 확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일상적인 아동돌봄 관련 무급노동시간을 줄여줌으로써 구체적인 경제적 자원과 기회를 제공한다(Hook, 2007). 보육서비스와 함께 대표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인 출산·양육휴가정책은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휴가기간인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을 젠더중립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대부분 여성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휴가제도 내에 아버지 쿼터와 같이 직접적으로 남성의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요소를 도입할 경우, 이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적절한 아동보육방식에 대한 규범적인 시그널을 제공한다. 즉,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개인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고, 남성이 함께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규범적 신호를 보낸다(Leira, 1998; Hook, 2010; Morgan, 2005).

다음으로 장시간 풀타임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체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들의 무급노동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여성의 유급

노동 참여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를 강화한다(Williams, 2000). ‘노동시간 체제’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 노동시간의 길이와 사용방식, 노동시간 관행 등이 서로 얽혀 하나의 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요구, 국가의 전략, 사회정책의 구조,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가족과 노동 문화, 지배적인 젠더문화 등도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긴 노동시간 체제는 물리적 기회와 제약이라는 측면과 성별분업에 근거한 규범적 측면 모두에서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를 제한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노동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경우, 개인들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한다. 동시에 남성 생계부양자의 장시간 노동이 ‘이상적인 노동자 규범’이라는 관념에 도전하고,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이 지향해야 할 규범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개인의 시간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과 형태 역시 남성과 여성의 시간가용성과 상대적 협상력에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규범적 영향도 존재하는데,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여성의 우선적인 역할이 유급노동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기혼여성의 임노동자화’, ‘노동력의 여성화’는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시대적 조류로 자리 잡았지만, 기혼여성의 노동력화의 방향과 수준은 각국의 젠더규범, 노동시장제도, 가족지원제도 등의 다양한 속성을 반영해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이 높고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 수준에서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무급노동 분업을 두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Fuwa, 2004). 즉, 상대적 생산성이 우위에 있거나 보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급노동을 둘러싼 협상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젠더불평등이 심각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많은 제약과 불리함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상대적 이점이 무급노동 분업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성역할 인식수준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한 사회가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데

(Wilkinson, 2005), 성역할에 대한 규범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성역할에 관한 개인들의 선택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문화적 규범이 지배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가치와 같은 속성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유사하더라도 혹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속성이 갖는 평등화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성역할 인식수준에 반영된 젠더규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에 반영된 젠더규범과 노동시장 내 젠더불평등, 전반적인 노동시간수준에 반영된 노동시장 상황과 노동시간 체제의 속성,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정책에 반영된 기회구조와 규범적 신호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무급노동시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고자 한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적용되는 제도적 논리의 상이함 때문에 각 요인들의 영향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선행연구 검토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초기 연구들은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200여 편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Coltrane(2000)의 연구는 여성은 오랜 시간 일할수록, 많은 임금을 받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적게 하는 반면, 남성은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종사상의 지위, 가족형태, 막내자녀의 연령 등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해주는 변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점차 국제비교가 가능한 시간자료들이 축적되면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연구들은 복지국가 정책이 무급노동시간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거나, 혹은 다섯 개 미만의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한 연구들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Fuwa(2004)는 개인수준 요인들과 거시수준의 젠더불평등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사노동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논문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인식조사(ISSP)의 1994년 『가족과 젠더역할 변화(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자료를 활용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사노동의 상대적 부담을 묻는 네 가지 문항을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미시적, 거시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시간 가용성을 확인하는 응답자의 고용지위, 성역할태도, 상대적 소득수준, 연령, 대학졸업 여부, 어린 자녀유무, 결혼 전 동거 유무 등을 개인수준 변수로 투입했고, 젠더격차를 반영한 여성권한척도, 경제적 발전수준을 반영한 1인당 GDP,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문화적 젠더규범을 반영한 젠더 이데올로기, 복지체제를 국가수준 변수로 투입했다. 그 결과, 여성권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아내들에게서 시간가용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훨씬 더 유의미했다. 하지만 실제 시간사용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한계적이다.

Hook(2006)는 1965~1998년 20개 국가의 38개 시간사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남성 무급노동 분석을 위해 대규모 국가 간 비교 표본을 사용한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시적 요인으로는 결혼유무, 15세 미만 자녀유무, 고용지위, 노동시간, 교육수준, 연령이, 거시적 요인으로는 여성고용 특성(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기혼여성 노동자의 평균 주당노동시간), 가족지원정책(0~2세 보육시설 등록률, 출산·육아휴직 기간,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남성고용 특성(남성노동자의 평균 주당노동시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주당 무급노동시간)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기혼일수록,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짧을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될수록, 남성노동자의 주당노동시간이 짧을수록, 총 무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서베이 수가 38개인 데 반해, 한꺼번에 많은 거시변수를 투입하여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은지(2008)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기술적인 수준의 분석에 그쳐왔던 한계를 넘어, 유급노동시간, 무급

노동시간, 여가시간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시간 사용을 다층경로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간사용의 젠더 격차에 주목하여 이것에 영유아 가족지원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독일(1992년), 프랑스(1998년), 캐나다(1998년), 스웨덴(2000년), 핀란드(2000년), 노르웨이(2000년), 영국(2000년), 미국(2003년), 한국(2004년) 9개 국가이다. 분석결과, 성별, 배우자고용지위, 가구소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급,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지원정책 중 노동지원정책은 남녀의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격차를 줄이고, 양육지원정책은 시간사용의 성별격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 중 영유아가족지원정책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남녀의 노동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제도적 맥락들에 의해 조건화된 개인의 경험이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더 나아가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다국가 시간사용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이하 MTUS)의 단순파일(Harmonized Simple File) 자료이다. MTUS 자료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25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시간일지 서베이를 표준화된 시간분류 코드에 따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비교 가능한 형태의 시간사용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다. 시간사용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구수준의 변수, 고용 및 교육 관련 변수들까지 제공하고 있어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와 시기는 덴마크(2001년), 노르웨이(2000년), 영국(2000년), 미국(2003년), 프랑스(1998년), 독일(2001년), 네덜란드(2005년), 스페인(2002년), 한국(2009년)이다.³⁾ 분석대상은 9개 국가의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20~59세 기혼(동거 포함 커플) 남녀 개인이다.⁴⁾

분석방법은 다층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은 여러 국가의 개인 자료들이 횡적으로 연결된 비교 국가자료로, 같은 국가 내에 속한 개인들은 동일한 제도 맥락에 놓여 다른 국가의 개인들보다 더 강한 유사성을 보일 것이다. 다층분석은 국가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된 다층적 자료구조를 고려하고자 할 때와(Raudenbush & Bryk, 2002) 자료 내에 위계적(hierarchical) 혹은 내재적(nested) 구조가 존재해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이 약할 때 유용하다. 또한 다층분석은 본 연구와 같이 각 국가마다 개인 수준의 사례 수들이 다른 불균형 자료(unbalanced data)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DeHoratius & Raman, 2008: 635). 분석자료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방법이 적절하다. 다만,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9개로 적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국가 변수를 투입할 경우 추정의 편의(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수준 변수를 투입할 때 1~3개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Mplus 4이다. 이때 가중치는 MTUS 단순파일에 포함된 PROPWT 변수⁵⁾를 사용하였다.

3) 2000년대 전후의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여 국가 수가 제한되었다. 2000년대 전후 자료로 캐나다(1998년), 이탈리아(2002년)도 있으나, 두 국가는 다층분석을 위한 거시자료 확보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현재 MTUS에서는 2009년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이를 사용했다. 스페인은 2008, 2009년, 영국은 2005년 더 최근 자료가 있으나 사례수가 적어 각각 2002년, 2000년 자료를 이용했다.

4) 남녀 간의 유급노동, 무급노동 시간배분의 역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를 단위로 실제 부부 사이의 시간사용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MTUS자료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인단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5) MTUS 코딩과정 매뉴얼에 따르면, 이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총인구 대비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고(원 서베이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 7개 각 요일의 자료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각 요일마다 연령, 성별 등이 유사하게 분포되도록 계산된 것이다.

2) 분석변수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20~59세의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남성의 1일 무급노동시간’과 ‘기혼여성의 1일 무급노동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MTUS 단순파일에서 분류, 제공하고 있는 25개 시간영역 중 9개 영역의 시간을 더하였다(표 1). 그리고 무급노동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분류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자인 Gershuny(2000)에 따르면, 아동돌봄 활동은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포함한 다른 무급노동과 그 패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급노동 내에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표 1] MTUS의 무급노동시간 구성

구분		활동 영역
무급 노동시간	아동돌봄 시간	① 신체적·의료적·일상적 아동 돌봄 ② 함께 놀고 운동하고 책 읽어주고 공부 가르치기
	가사노동 시간	③ 음식준비, 요리, 설거지 ④ 청소, 세탁 ⑤ 집 유지 및 보수, ⑥ 물건 구입, 서비스 소비, ⑦ 정원 가꾸기, ⑧ 애완동물 돌봄, ⑨ 성인 돌봄

(2) 독립변수

다층분석에서 독립변수는 국가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로 구분된다. 개인·국가 수준 독립변수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출처	
개인수준 변수	연령	연령	MTUS	
	어린 자녀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수		
	교육수준	대졸		고졸 미만 대비 전문대 이상 졸업
		고졸		고졸 미만 대비 고졸 이상
	주당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고용 지위	비취업 0, 파트타임 취업 1, 풀타임 취업 2		

구분	변수명	정의 및 측정	출처
국가수준 변수	성역할인식	남녀의 성역할과 여성의 취업에 관한 다섯 개의 문항 ⁶⁾ 의 평균값. 5점 척도로 값이 커지수록 평등한 인식수준	ISSP(2002), KGSS(2003)
	평균 유급노동시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유급노동시간	MTUS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20~64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MTUS
	0~2세 보육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OECD Family Database
	3~5세 보육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출산·양육휴가	출산·양육과 관련된 유급, 무급 전체 휴가기간(주)	Gauthier (2011)

참고: 국가수준 변수의 자료시점은 다음과 같음. 성역할인식은 한국은 2003년, 그 외 국가는 2002년 조사 자료임. MTUS자료를 이용해 값을 구한 평균 유급노동시간, 기혼여성 노동시장참가율은 종속변수와 동일한 해의 값임. 휴가기간 변수 역시 종속변수와 동일한 해의 값을 투입함. 보육시설 등록률의 경우도 한국은 2008년, 그 외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 값을 투입해 종속변수와 시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국가수준 독립변수로 투입한 성역할인식은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개인의 성역할인식’을 의미하며(Konrad & Harris, 2002), 이는 문화적 젠더규범을 보여준다. 노동시간제도로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을 투입하였다. 노동시장제도에는 표준노동시간 혹은 최대노동시간에 대한 규제정책, 고용보호규제(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권리, 유연한 노동시간제도(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 지표라 할 수 있는 ‘평균 유급노동시간’을 대리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20~64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변수는 해당 사회의 젠더규범과 노동시장제도, 양육지원제도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outcome) 변수라 할 수 있다.

6) 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 ② 남성이 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③ 일을 갖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과 아이들이다, ④ 취학 전 아동은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⑤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체로 가족의 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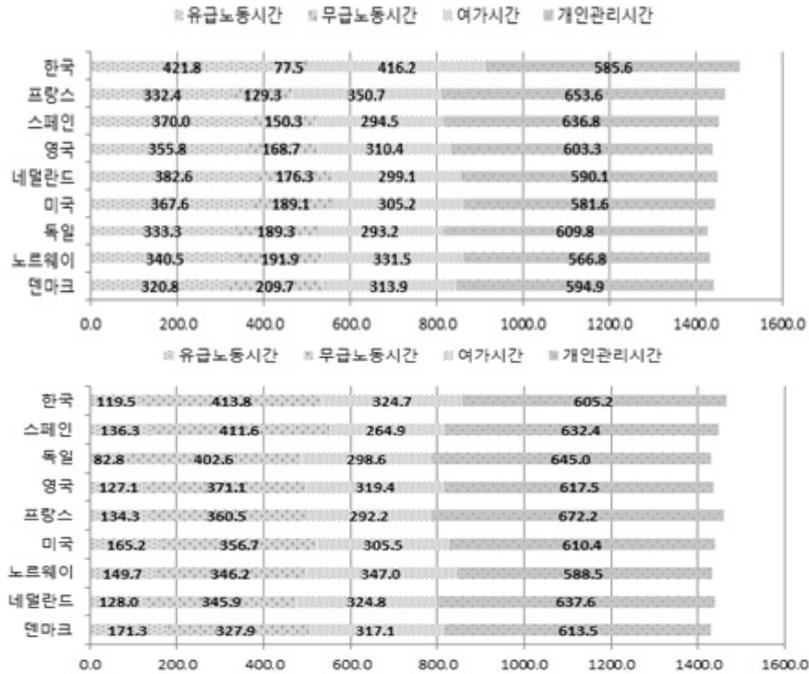
1) 국가별 기혼남녀의 생활시간 구성 차이

[그림 1]은 5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생활시간이 얼마나 상이한지를 보여준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지만, 국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이 시간을 조직하고 사용하는 패턴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MTUS의 생활시간분류는 무급노동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관리시간, 교육 및 기타시간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Gershuny, 2000). 유급노동시간에는 유급노동, 통근시간이, 여가시간에는 종교활동/자원봉사 및 시민활동/이동 및 여행/운동, 스포츠/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독서/인터넷, 컴퓨터 게임/집밖 레저활동/기타 여가시간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 앞의 4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교육 및 기타활동시간이 있다.

먼저 남성들의 생활시간 구성을 보면, 한국 남성이 1일 평균 421.8분으로 가장 긴 시간 유급노동을 하고 77.5분 무급노동을 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국가로서의 면모를 독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덴마크로 1일 평균 209.7분이고 노르웨이가 191.9분으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 노르웨이가 2001년, 2000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이 2009년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10여 년의 시간 간극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격차는 상당하다. 여성들의 생활시간 구성을 보면, 한국 여성이 1일 평균 413.8분으로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스페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인관리시간은 남녀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덴마크 여성들이 가장 길고, 미국,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독일 여성들은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이는 독일이 2007년부터 그 기간이 단축되기 전까지 3년이라는 긴 육아휴직 제도를 갖고 있었고,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이 유지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국가별 기혼남녀의 생활시간 구성(위: 남성, 아래: 여성)

(단위: 분)



주: 국가 순서는 무급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남성은 오름차순으로, 여성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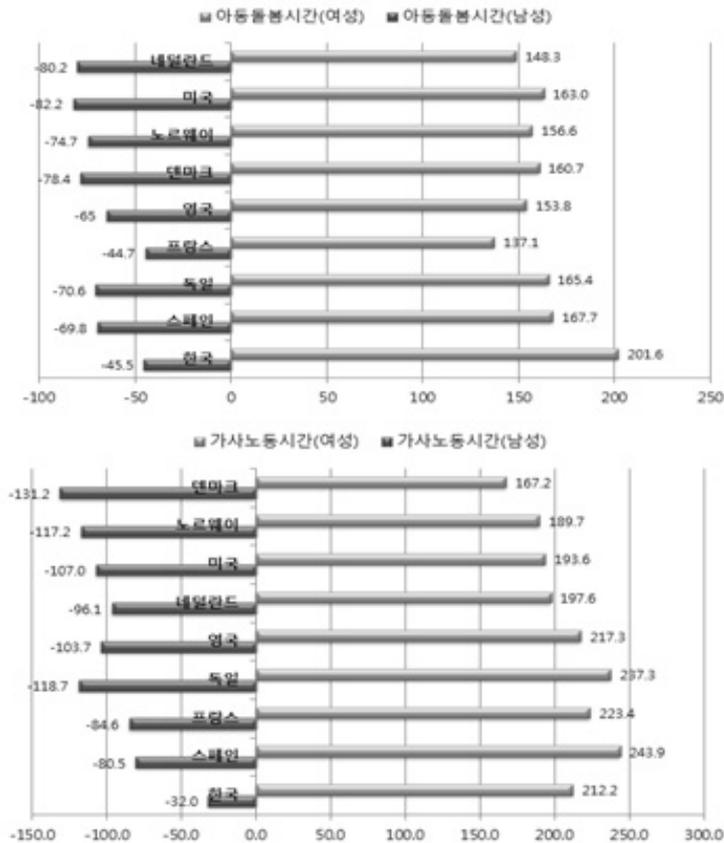
여러 생활시간 범주 중에서도 특히 무급노동시간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이 336.3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스페인(261.3분), 프랑스(231.2분), 독일(213.3분), 영국(202.4분), 네덜란드(169.6분), 미국(167.6분), 노르웨이(154.3분)에 이어 덴마크가 118.2분으로 가장 차이가 작았다. 덴마크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평균 하루의 22.8%를 무급노동에 사용하는데, 하루의 14.6%를 쓰는 남성의 약 1.5배이다. 반면에 한국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평균 하루의 28.7%를 무급노동에 사용하는데, 남성(하루의 5.4% 사용)의 무려 5.4배 많은 시간 동안 무급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배 정도의 무급노동을 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상황은 극심한 시간격차를 보여주며, 특히 다른 국가들의 경우 2000년대 전후 시점인데 반해 한국은 2009년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심각하다. 한국과 유사하게 남성 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페인도 2.7배 정도이다. 한편, 프랑스도 2.8배로 남녀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당과 길고 관대한 출산·양육휴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해될 수 있다.

[그림 2]는 무급노동시간을 가사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으로 구분해 국가별,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보여준다. 한국은 가사노동시간(180.2분)과 아동돌봄시간(156.1분) 모두에서 남녀차이가 가장 큰 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남성들은 아동돌봄시간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남녀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로는 아동돌봄시간의 경우 네덜란드(68.1분), 가사노동시간은 덴마크(36분)이다.

[그림 2] 국가별 기혼남녀의 아동돌봄시간, 가사노동시간 차이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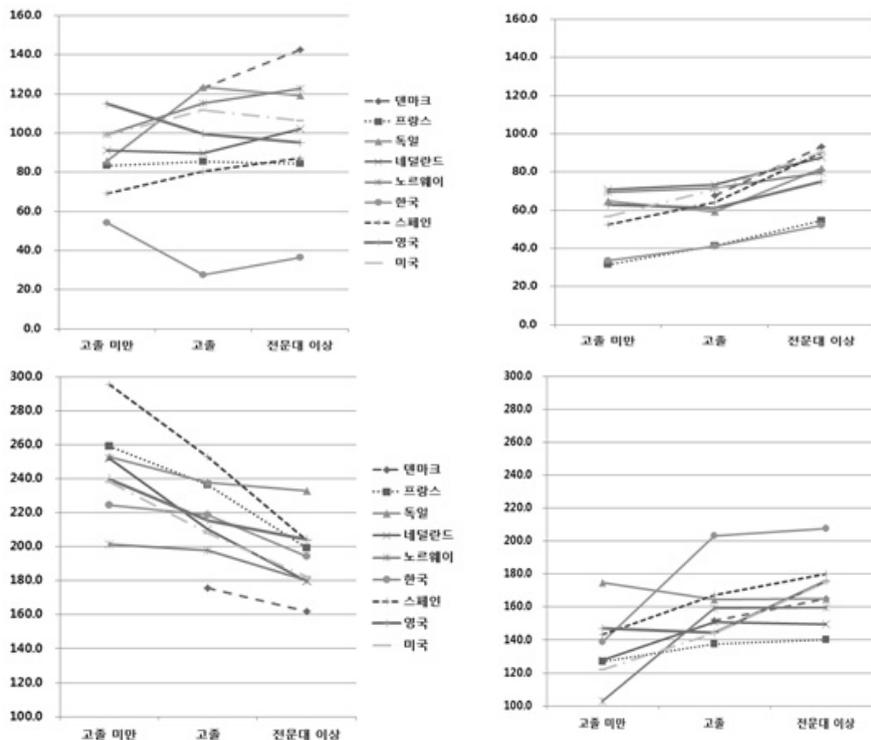
주: 국가 순서는 남녀 간 시간격차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것임.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가사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이 교육수준에 따라 얼마나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체로 남성은 고학력자일수록 가사노동시간과 아동돌봄시간이 길었고, 여성은 고학력자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아동돌봄시간은 길었다. 고학력자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음을 보여주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사노동시간은 줄이더라도 아동돌봄시간을 줄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더 늘리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그 차이와 패턴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3] 국가별 교육수준에 따른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아동돌봄시간

(위: 남성, 아래: 여성/ 좌: 가사노동시간, 우: 아동돌봄시간)

(단위: 분)



2) 개인 및 국가 수준 변수들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먼저, 20~59세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 남녀만을 분석대상⁷⁾으로 제한한 이 연구에 포함된 개인수준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개인수준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무급노동시간(분)		168.93	163.25	372.16	191.97
아동돌봄시간(분)		72.99	94.86	165.07	128.50
가사노동시간(분)		95.94	125.20	207.09	137.85
연령(세)		35.12	6.623	32.90	6.328
미성년 자녀수(명)		1.92	0.97	1.92	0.97
주당 노동시간(시간)		45.01	12.59	32.89	13.58
		빈도(명)	%	빈도(명)	%
고용지위	비취업	1,302	6.9	7,892	44.5
	파트타임	783	4.2	3,833	20.9
	풀타임	16,353	87.0	6,012	32.8
교육수준	하	2,120	11.3	1,951	10.6
	중	6,895	36.7	6,921	37.7
	상	9,724	51.7	9,418	51.3

그리고 [표 4]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수준 변수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성역할인식 수준의 경우,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평등한 수준을 보이고, 한국과 스페인이 가장 전통적인 인식수준을 보인다. 20~64세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장시간노동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이 49.11시간으로 단연 높고, 소위 '파트타임 경제'라 불리는 네덜란드가 34.14시간으로 가장 낮다. 20~64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노르웨이(78.7%), 덴마크(74.0%)로 높고, 스페인이 40.9%, 한국이 54.2%로 낮았다. 양육지원정책에 해당하는 0~2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덴마크가 64%로 가장 높고, 스페인이 5%로 가장

7) 국가별 사례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으로 남성의 경우, 덴마크 406(2.2%), 프랑스 835(4.4%), 독일 1,360(7.2%), 네덜란드 735(3.9%), 노르웨이 513(2.7%), 한국 2,009(10.7%), 스페인 2,138(11.4%), 영국 1,046(5.6%), 미국 9,752(51.9%)이다. 여성의 경우 덴마크 417(2.3%), 프랑스 816(4.4%), 독일 1,371(7.5%), 네덜란드 876(4.8%), 노르웨이 631(3.4%), 한국 1,857(10.1%), 스페인 2,301(12.5%), 영국 967(5.3%), 미국 9,117(49.7%)이다. 총 사례수는 37,147로 남성이 18,794, 여성이 18,353이다.

났다.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은 0~2세 영아와 달리 양육의 의미와 함께 조기교육의 차원에서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영국, 미국, 독일은 다소 낮은데, 이후 영국과 독일은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08년 현재 3~5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각각 92.7%, 92.7%에 이른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정책의 확대로 2008년 기준으로 0~2세 보육시설 등록률이 37.7%, 3~5세 등록률이 7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출산·양육휴가기간은 프랑스, 스페인이 172주로 가장 길다.

[표 4] 국가별 거시변수 특징

국가	성역할인식 (점)	주당평균 노동시간 (시간)	기혼여성노동 시장참가율 (%)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출산· 양육휴가 기간(주)
덴마크	3.60	37.14	74.00	64.0	91.0	56
노르웨이	3.54	36.90	78.70	37.0	78.0	143
영국	3.18	39.19	68.20	15.0	42.0	44
미국	3.13	41.41	68.30	16.0	54.0	12
프랑스	3.22	36.19	55.20	39.0	100.0	172
독일	3.30	37.01	60.90	9.0	54.0	170
네덜란드	3.20	34.14	66.30	19.0	90.0	68
스페인	3.08	34.95	40.90	5.0	84.0	172
한국	2.49	49.11	54.20	37.7	73.3	65

다음으로 다층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와 거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거시변수들 간 상관관계

	기혼남성 무급노동 시간	기혼여성 무급노동 시간	성역할 인식	전체평균 노동시간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가율	0~2세 보육시설 등록률	3~5세 보육시설 등록률
기혼여성 무급노동시간	-.63	1.00					
성역할인식	.88**	-.71*	1.00				
전체평균노동시간	-.62	.40	-.75*	1.00			
기혼여성노동참가	.65	-.79*	.61	-.07	1.00		
0~2세 보육	.01	-.55	.26	.17	.43	1.00	
3~5세 보육	-.16	-.30	.16	-.35	-.19	.53	1.00
양육휴가기간	-.12	.36	.18	-.46	-.46	-.17	.37

그리고 남녀 모두 종속변수인 무급노동시간은 분석에 포함된 개인변수들과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연령과 0.024, 미성년자녀 유무와 0.034, 교육수준과 0.097, 고용지위와 -0.182, 주당 노동시간과는 -0.113로, 여성의 경우 연령과 0.028, 미성년자녀 유무와 0.110, 교육수준과 -0.054, 고용지위와 -0.418, 주당 노동시간과는 -0.233으로 상관관계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1)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 무급노동시간의 국가 간 변량 차이

먼저, 종속변수인 5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서 국가 간 변량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검증하였다. 집단 내(within) 변량과 함께 집단 간(between) 변량을 고려하는 다층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변량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는데, Muthén & Satorra(1995)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 값이 0.05 이상, 설계효과(DEFF) 값이 2.0 이상이면 다층모형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Muten & Satorra(1995)는 ICC값이 낮아도 표본크기가 크면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ICC 자체보다는 표본수를 고려한 DEFF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김은지, 2008).

[표 6] 종속변수의 국가 간 변량

	남성			여성		
	무급노동 시간	아동돌봄 시간	가사노동 시간	무급노동 시간	아동돌봄 시간	가사노동 시간
집단 내 상관계수(ICC)	0.055	0.019	0.048	0.023	0.016	0.026
설계효과	104.17	36.640	91.040	49.346	34.630	55.652
평균집단크기	1876.778			2103		

주: 설계효과(Design Effect)는 군집표집을 통한 변량과 단순무작위 표집을 했을 때의 변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 + ICC \times (N-1)$ 로 계산됨. 이때 N은 집단 평균 사례수임.

분석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변량에서 국가수준의 변량이 차지하

는 비율을 의미하는 ICC(Intra- class Correlations) 값을 보면, 남성 무급노동시간과 여성 무급노동시간의 변량 중 국가들 간의 변량이 각각 5.5%, 2.3%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무급노동시간의 국가 간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국가 간 맥락이 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남성 무급노동시간은 ICC값이 0.05 이상이고 설계효과 역시 104.17로 임계치인 2보다 훨씬 큰 수치이므로 집단 간 변량을 고려하는 다층모형을 적용할 때 적절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ICC값이 0.023이지만 설계효과가 49.346으로 임계치보다 큰 수치이므로 다층모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무급노동시간을 돌봄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국가 간 변량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돌봄노동시간보다는 가사노동시간에서 국가 간 변량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개인변수 모형

다음으로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을 검증하였다. 국가 간 공통변량에 대해서만 개인수준 변수가 투입된 것으로,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7] 개인수준 변수 모형 분석결과

	남성 무급노동시간		남성 아동돌봄시간		여성 무급노동시간		여성 가사노동시간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연령	0.69**	3.70	0.01	0.05	0.23	0.43	1.47**	6.20
미성년자녀 수	3.05	1.01	1.13	0.79	15.34**	6.93	11.39**	5.53
주당노동시간	-1.21**	-4.53	-0.55**	-4.60	-2.40**	-6.50	-1.20**	-4.39
고용지위	-3.34	-0.38	-2.86	-0.91	-25.53**	-3.66	-16.87*	-2.47
고등학교 졸업	28.33**	5.11	14.12**	3.84	24.53**	4.19	-11.49**	-3.17
대학교 졸업	50.43**	8.84	35.05**	7.08	46.47**	4.09	-20.86**	-7.66
잔차분산	22501**	7.12	7623**	5.67	29631**	15.99	15600**	11.64
모형적합도 ⁸⁾	ICC	0.056	0.019	0.009	0.015			
	CFI	0.964	0.997	0.976	0.964			
	TLI	0.927	0.995	0.953	0.928			
	RMSEA	0.009	0.003	0.017	0.019			

* p<.05, ** p<.01

8) CFI, TLI는 0.9 이상이면, RMSEA는 0.05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적합도를 가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연령, 주당 노동시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이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노동시간과 미성년 자녀의 수는 시간가용성(time availability)을 나타내는데, 주당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무급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수의 경우,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유의미하게 늘렸지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용지위와 교육수준은 상대적 자원의 이점을 나타내는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고용지위와 무관했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풀타임 취업자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을 포함한 무급노동시간이 짧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생산성과 소득능력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자원을 강화하고 그 결과 상대적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부부의 상대적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이 평등한 성역할 인식과 연결되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늘리고 여성의 시간은 줄임으로써 ‘젠더 평등화’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어 온 바다(Craig & Mullan, 2011). 교육수준이 전체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고학력일수록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역시 고학력일수록 늘어나 기존 연구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인가? 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전체 무급노동시간을 아동돌봄시간과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⁹⁾ 그 결과, 아동돌봄시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무급노동시간은 고졸 미만에 비해 고졸일수록, 전문대졸 이상일수록 늘었지만, 가사노동시간에 한정하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은 줄이지만 아동돌봄시간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림을, 그래서 ‘젠더 평등화’ 효과는 가사노동의 영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유급노동시간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일대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Bittman, Craig & Folbre, 2004; Hofferth, 2001)와 일치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고학력일수록 아동돌봄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고학력 집단에 집중된다는 것이고, 이는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9) 남성 가사노동시간과 여성 아동돌봄시간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형은 모형적합도가 낮아 제시하지 않았다.

(3) 조건부 모델(conditional model): 개인변수 + 국가변수 모형

다음으로 개인변수들에 국가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이는 개인의 특성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국가정책이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국가 수준 변수 투입 시, 앞서 분석방법에서 설명했듯이 분석에 포함된 국가 수가 9개로 적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국가수준 변수를 투입할 경우 추정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6개 변수를 1~3개씩 투입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모형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입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에 제시하지 않았다.

[표 8] 다층모형 분석결과: 남성 무급노동시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206.45**	-8.42	217.92**	3.75	-206.24**	-9.52	-170.57**	13.3
성역할인식	99.6**	5.65			95.91**	11.26	110.68**	13.30
전체노동시간			-5.14**	-4.31				
기혼여성취업	0.73	1.37	2.21**	5.36	1.26**	3.38	0.31	1.02
0~2세 보육					-0.73**	-3.44		
3~5세 보육							-0.57**	-2.73
양육휴가기간								
잔차분산	188.67*	2.43	258.02**	4.02	56.14*	2.25	84.15**	2.87
ICC	0.056		0.57		0.056		0.057	
CFI	0.970		0.959		0.993		0.961	
TLI	0.931		0.903		0.983		0.902	
RMSEA	0.010		0.012		0.005		0.013	

* p<.05, ** p<.01

먼저,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투입된 변수들 중, 성역할인식, 기혼여성 취업률, 전체노동시간, 0~2세 보육시설등록률, 3~5세 보육시설등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규범이 평등한 사회, 전체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사회, 기혼여성의 고용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국가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3과 모형4의 경우, 변수의 수가 많아 추정의 편의가 존재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데, 0~2세와 3~5세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률이 긴 사회일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인 보육정책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Windebank(2001)는 프랑스의 예를 들어 설명하긴 했으나, 여성고용 증가로 인해 남성 무급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로 인해 완화, 상쇄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에게 해당되고,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젠더중립적인 정책이긴 하나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아내의 출산·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논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종속변수를 남성의 아동돌봄시간으로 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성역할인식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성역할인식 수준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남성의 아동돌봄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 사회의 성역할 규범이라는 것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어떻게 타협하고 합의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정책수준 이상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성역할 규범은 그 사회의 여성·가족정책의 형성이나 사회정책의 젠더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형성된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류연규·김영미, 2012). 이러한 이유로 성역할인식 요인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9]는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투입된 변수들 중, 전체 유급노동시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전체 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의 경우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표 9] 다중모형 분석결과: 여성 무급노동시간, 여성 가사노동시간

	여성 무급노동시간		여성 가사노동시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405.51	16.14	274.6	14.35	115.35	4.18	192.05	5.25
성역할인식								
전체노동시간	-3.30**	-6.29	-2.59**	-5.73			-1.50**	-3.61
기혼여성취업	0.51	2.76			0.59	1.69	0.40	1.40
0~2세 보육								
3~5세 보육								
양육휴가 기간					0.23**	3.15	0.16*	2.17
잔차분산	44.02	1.50	111.52	1.79	87.26	2.23	54.14	1.58
ICC	0.009		0.015		0.016		0.015	
CFI	0.992		0.976		0.977		0.982	
TLI	0.980		0.947		0.946		0.955	
RMSEA	0.011		0.016		0.016		0.015	

* p<.05, ** p<.01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했는데, 전체 유급노동시간과 출산·양육휴가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전체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일수록, 출산·양육휴가기간이 긴 국가일수록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의 경우, 그만큼 여성들의 무급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소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파트타임 고용과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한 네덜란드에서는, 여성들이 자발적 파트타임 노동 선택을 통해 유급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적절히 잘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스페인과 같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급노동시간은 길지 않지만,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유지됨으로 인해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제한적이고 무급노동시간이 긴 국가의 경우 적용되는 논리는 달라진다.

또한 남성과 여성 무급노동시간의 이러한 차이는 각각이 갖고 있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지향이 상이하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여성의 유급노동시간 증가속도와 비교해 너무나 느린 속도로 더디게 늘어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늘리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아버지의 육아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남성의 아동돌봄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 지원은 존재하나, 일상적인 가사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전통적인 성별분업 규범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다소 모호함이 있다. 여전히 가사노동과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어 무급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나, 그 방향이 직선적이지는 않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적절한 균형’이지 무급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돌봄의 경우, 점차 부모(특히, 엄마)에게 자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평등한 아동돌봄시간의 분배보다는 집중적인 자녀 양육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Craig & Mullan, 2011).

4.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정책이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남녀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복지국가의 제도, 정책이라는 거시적 요인과 개인 및 가구의 특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이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제도와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배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별 노동분업의 현실을 넘어,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생애주기 속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즉, 고용과 돌봄을 위한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자녀를 둔 기혼남녀의 무급노동시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고,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한국과 덴마크는 양극단에 위치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 분석결과, 주당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무급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

졌지만, 미성년 자녀의 수는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유의미하게 늘린 반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은 무급노동시간을 늘리고 여성은 줄임으로써 ‘젠더 평등화’의 효과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 변수를 개인 변수와 함께 투입했을 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성역할규범이 평등한 사회, 전체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사회, 기혼여성의 고용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체 유급노동시간이 짧은 사회일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출산·양육휴가기간이 긴 국가일수록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의 선호와 행위를 형성·제한하는 제도적 맥락의 영향이 남녀의 무급노동시간 패턴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젠더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무급노동시간의 배분을 둘러싼 젠더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성역할 인식을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전체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급노동시간의 남녀 격차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영유아 양육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젠더중립적인 육아휴직정책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늘리고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이름의 파트타임 일자리의 확대로 여성고용을 늘리고자 하나, 이 역시 기존의 성별분업이나 남성의 무급노동의 세계에는 전혀 도전하지 않는다. 무급노동시간의 젠더 격차가 극심한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남녀 모두에게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다. 평등한 성역할 규범 속에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늘어났듯이, 단기적인 육아참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을 위한 정책적,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순양 (2009). 사회정책과정 분석에서의 제도 개념: 한계 및 통합적 개념 틀의 모색. *사회복지정책*, 36(3): 1-29.
-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211-241.
- 김은지. (2008).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연규 · 김영미 (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175-203.
-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한국행정정보*, 36(4): 339-359.
- Adam, B. (1990). *Time and social theory*. Temple University Press.
- Anxo, D., Flood, L., Mencarin, L., Pailhé, A. Solaz, A. & Tanturri, M. L. (2007). Time alloc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over the life cycle: a comparative gender analysis of Italy, France,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IZA Discussion Paper No. 3193.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ianchi, S. M., Robinson, J. P. & Milkie, M. A.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ianchi, S., Casper, L. & Petola, P. (1996). A cross-national look at married women's economic dependency. LIS working paper No. 143.
- Bianchi, S., Milkie, M., Sayer, L. & Robinson, J.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 191-228.
- Bittman, M., Craig, L. & Folbre, N. (2004). Packaging care; what happened when parents utilize non-parental child care, in Folbre, N. & Bittman, M. (Eds.)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Routledge IAFPE Advances in Feminist Economics.
- Bittman, M., England, P., Folbre, N., Sayer, L. & Matheson, G.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 Blair, S. M. & Lichter, D. L. (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 91-113.
- Blau, F., Ferber, M. & Winkler, A. (1998). *The economics of men, women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 Blood,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Free Press.
- Bonke, J. & Esping-Andersen, G. (2008). Productivities, preferences and parental child care. Domestic Working Paper 29. Universitat Pompeu Fabra.
- Breen, R. & Cooke, L. P. (2005). The persistenc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domestic lab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1), 43-57.
- Brines, J. (1993). The exchange value of housework. *Rationality and Society*, 5(3), 302-340.
- ____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ancian, F. M. & Oliker, S. J. (2000). *Caring and gender*. Walnut Creek, CA: Alta Mira Press.
- Ciabattari, T. (2001). Changes in men's conservative gender ideologies: cohort and period influences. *Gender & Society*, 15, 574-591.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208-1233.
- ____ (2007). Fatherhood, gender and work-family policies, in Wright, O. (Eds.) *Real Utopias*. WI: University of Wisconsin.
- Coverman, S. & Sheley, J. F. (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413-422.
- Craig, L. (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 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69-87.
- Craig, L. & Mullan, K. (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 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861.
- DeHoratius, N. & Raman, A. (2008). Inventory record inaccuracy: An empiric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54(4), 627-641.
- England, P. & Budig, M. (1998). Gary Becker on the Family. in Clawson, D. (Eds.) *Required reading: sociology's most influential book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England, P. & Farkas, G. (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New York: Aldine.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 Evertsson, M. & Neramo, M. (2004). Dependence within families and the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 1272-86.
- Fan, P. L. & Marini, M. M. (2000) Influences on gender-role attitude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Science Research*, 29, 258-283.
- Fuwa, M. (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751-767.

- Gauthier, A. H. (2011). Comparative Family Policy Database, Version 3 [computer file].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distributors). Retrieved from: www.demogr.mpg.de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huny, J., Michael G. & Sally J. (1994). The domestic labour revolution: a process of lagged adaptation. in Anderson, M. (Eds.)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rnick, J. C. & Jacobs, J. (1998).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sector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688-710.
- Greenstein, T. H. (2000). Economics dependence, gender and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322-335.
- Greenstein, T. N.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85-595.
- Hiller, D. (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s*, *10*, 1003-1019.
- Hobson, B. (1990). No exit, no voice: women's economic dependency and the welfare state. *Acta Sociologica*, *33(3)*, 235-250.
- Hochschild, A. &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 Hofferth, S. (2001). Women's employment and car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Van der Lippe, T. & Van Dijk, L. (Eds.) *Women's employmen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Hook, J. (2006). Care in context: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_____ (2007). Gender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 sex segregation in housework, 1965-2003. The gender and well-being network(COST Action A-34) symposium3: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ll-being into the family conference. Barcelona.
- _____ (2010). Gender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x segregation in housework, 1965-200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639-660.
- Ishii-Kuntz, M & Coltrane, S. (1992). Predicting the sharing of household labor: are parenting and housework distinct? *Sociological Perspectives*, *35(4)*, 629-647.

- Kalleberg, A. & Rosenfeld, R. (1990). Work in the family and in the labor market: a cross-national, reciproc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331-346.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Knijin, T. & Kremer, P. (1997). Gender and the caring dimension of welfare states: towards inclusive citizenship. *Social Politics*, 4, 328-361.
- Konrad, A. M. & Harris, C. (2002). Desirability of the Bem sex-role inventory items for women and men: a comparison between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Sex Roles*, 47, 259-271.
- Kremer, M. (2006). *How welfare states care: culture, gender and citizenship in Europe*.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Utrecht.
- Leira, A. (1998). Caring as a social right: cash for child care and daddy leave. *Social Politics*, 5, 362-378.
- ____ (1999). Introduction. in Leira, A. (Eds.) *Family change: practices, policies and value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8. Stanford, Connecticut: JAI Press.
- 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Lewis, J., Campbell, M. & Huerta, C. (2008). Patterns of paid and unpaid work in western europe: gender, commodification, preferences and the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1), 21-37.
- Loo, R. & Thorpe, K. (1998). Attitudes toward women's roles in society: a replication after 20 years. *Sex Roles*, 39, 903-912.
- Maret, E. &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Morgan, K. J. (2005). The 'production' of child care: how labor markets shape social policy and vice versa.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12, 243-263.
- Muthén, B. & Satorra, A. (1995). Complex sample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Marsden P.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216-316.
- Orloff, A. S. (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328.
- Pfau-Effinger, B. (2005). *Changing welfare states and labour markets in the context of European gender arrangements*. Aalborg: Centre for Comparative Welfare State Studies, Aalborg University.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ition, Newbury Park, CA: Sage.
- Ross, C. E. (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3), 816-833.
- Rubery, J., Smith, M. & Fagan, C. (1998). National working-time regimes and equal opportunities. *Feminist Economics*, *4*(1), 71-101.
- Sainsbury, D. (1996). *Gender, 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berg, J. F. & Hofferth, S. L. (2001). Changes in children's time with parents, U. S.: 1981-1997. *Demography*, *38*(3), 423-436.
- Shelton, B. A. & John, D.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 South, S. J. & Spitze, G. (1994). Housework in marital and non-marital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27-347.
- Stickney, L. T. & Alison M. K. (2007). Gender role attitudes and earnings: a multinational study of married women and men. *Sex Roles*, *57*, 801-811.
- Stier, H. & Lewin-Epstein, N. (2000).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gender inequality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90-410
- Wilkinson, R. (2005). *The impact of inequality: how to make sick societies healthier*. the New Press, New York.
- Williams, J. (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ndebank, J. (2001). Dual-earner couples in Britain and France: gender division of domestic labour and parenting work in different welfare state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 269-290.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Welfare State Policy and the Unpaid Work Time by Gender

Kim, Young 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individuals' and couples'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unpaid work distribution by gender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national context on unpaid work time of married men an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alyses use the data from the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for 9 countries including Korea(spanning 1998 to 2009). It conducts a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 norms, total paid work time, employment rate of married women, enrollment rate in publicly-funded child care, length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while controlling for individual attributes of age, education, employment status, weekly working time, number of children. It is interesting that men's unpaid work time increase in the societies with equal gender ideology and norm, reduced total working time and high employment level of married women. On the contrary, women's unpaid work time increase in the societies with reduced total working time and long parental leave.

Key Words: unpaid work time, welfare state policy, Multi-national Time Use Study(MTUS), multi-level analysis

◆ 2014.02.06. 접수 / 2014.02.27. 1차 수정 / 2014.03.07. 게재 확정

* Assistant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Welfare (dezember26@gdsu.dongseo.ac.kr)